

Difficulties and Practice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in Parents Cooperation Experiencing with the Multicultural Background Families¹⁾

Kwon, Hye-Jin²⁾ (Soonchunhya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difficulties and practices experienced by early childhood teachers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father of multicultural background families. For thi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en early childhood teachers who have taught multicultural background families. The collected data were transcribed and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early childhood teachers experienced the blocked communications by cooperating with the multicultural background family fathers. Therefore, teachers tried to communicate more with fathers and mothers. Second, the early childhood teachers experienced difficulties caused by the inappropriate demands for child development by cooperating with the multicultural background family fathers. Teachers were seen accepting these demands as a teacher's role. However, some teachers did not accept them in terms of the child-equality.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contents and direction of fathers of multicultural background famili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 Early childhood teacher, multicultural background family, cooperation, difficulty, practice

1) This work was conducted with 2020 research support from Soonchunhyang University.

2) Corresponding Author: Kwon, Hye-Jin, Associate Professor, Soonchunhyang University, 22 Soonchunhyang-Ro, Sinchang-Myeon, Asan-Si, Chungcheongnam-Do, Korea, 31538 / E-mail: hjkwon4875@sch.ac.kr

유아교사가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와 협력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교육적 실천¹⁾

권혜진²⁾ (순천향대학교, 부교수)

< 요약 >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와 협력을 통해 유아교사가 경험하는 교육적 노력과 실천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결혼이주민가정 유아를 지도하고 있는 10명의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내용은 녹음, 전사되었고 수집된 전사본을 중심으로 질적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는 결혼이주민가정 아버지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아버지에게 더 많은 소통을 시도하거나 어머니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유아교사는 결혼이주민가정 아버지들의 영유아발달에 부적절한 요구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교사들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 여기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유아의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하지 않는 교사의 모습도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아교육기관에서 결혼이주민가정 아버지를 위한 교육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유아교사, 결혼이민자가정, 협력, 어려움, 실천

1) 이 논문은 2020년 순천향대학교 연구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 교신저자: 권혜진, 부교수, (31538)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순천향대학교 / E-mail: hjkwon4875@sch.ac.kr

논문투고일자: 2020. 11. 15 / 심사일자: 2020. 11. 23 / 게재확정일자: 2020. 12. 11

I. 서론

현재 우리 사회는 산업구조 형태 변화, 저출산을 포함하는 사회,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이주 인구 유입과 국제결혼 가정이 증가 추세에 있다. 아직 우리 사회를 다문화 사회로 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보는 견해(Kim, 2013)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현재 단일민족, 단일혈통이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던 한국 사회는 다인종화, 다문화화(Jun et al., Kwak, 2008; Park & Yun, 2018)되어 가고 있고 이는 인구학적 통계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0)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결혼이민자는 2018년 11월 현재, 166,882명으로 남성 32,858명, 여성 134,024명으로 결혼이민자 여성이 남성에 비해 4배가량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은 주로 아시아계 여성이며 국적별로 살펴보면 베트남이 6,712건으로 전체 37.9%를 차지한다. 이어 중국 3,642건(20.6%), 기타 국가 2,528건(14.3%), 태국 2,050건(20.6%)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는 총 237,506명이며 이 중 만 6세 이하 유아는 114,125명으로 약 48%에 해당된다.

1990년대 봄을 이루었던 농어촌 지역 국제결혼을 축으로 최근 외모나 문화, 교육에 관한 사고 및 지원방식이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동남아 출신 결혼이주민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여성들이 현재 한국의 다문화가정을 구성하는 주류이며 한국 생활 적응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Lee et al., 2010). 영유아교육현장에서 역시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의 수가 늘고 있음에도 부모들은 결혼이민자가정과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편견(You, 2018)이 여전히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 역할은 가족에게 경제적 자원제공, 안전과 안정책임을 담당하고 어머니는 가사, 육아를 담당해 왔다(Huh & Han, 2009). 그러나 현대사회는 부부중심의 가족구조, 취업부부 증가 등으로 인하여 가족구성원의 역할이 변화되면서 어머니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전통적 양육방식에서 아버지의 참여가 증가하고 아버지 역할에 대한 중요성 역시 강화되고 있다. 결혼이민자 여성들과 결혼한 한국 남성들은 선택의 한계에 부딪혀 결혼이민자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아내 나라의 문화에 대한 자신의 이해 부족, 부정적인 인식, 주변의 편견 등으로 외부 노출을 꺼리고 심적 부담을 느끼며 부부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인다(Park, 2019). 이는 결혼이민자가정 부부 간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Y. J. Choi, 2016). 이처럼 다문화가정의 남성은 결혼과정에서의 적응, 아버지로서의 적응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 속에서 사회적 환경에서의 적응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Lee, 2010).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성과 정적 상관을 보이며 하위요인 중 친사회성, 어린이집 내에서의 정서 상태, 또래 간의 적응, 어린이집 일과에 대한 적응과 정적 상관을 지닌다(Kang, 2014). 또한,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고 자녀와 여가활동, 자녀와 관련된 생활지도, 가사활동, 교육적 활동에 조력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는 안정적인 사회적 발달이 독립적이고 내적 통제력이 강하며 성취동기 및 호기심, 사회적 활동성 등이 뛰어나고 타인과 더 잘 협력한다(Oh, 2012; Shin, 2010).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은 한부모나 사회 계층이 낮은 가정 출신이 많으며 열악한 조건에서 낮은 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소득층이 대부분이며 농촌지역 미혼 총각, 만혼, 장애인, 재혼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Choi, 2016).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을 조사한 Kim(2012)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아버지들이 ‘자녀가 버릇없게 행동을 해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자녀를 때린다’, ‘자녀가 혼자서 놀게 내버려 둔다’ 는 점을 들어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무심함을 지적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Lee(2014)는 다수의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이 교육적인 아버지 역할에 대해 무관심 혹은 낙관적이거나 귀찮아하는 모습과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어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방임적 태도와 의식, 어머니의 언어적 문화적 결핍이 복합되어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부적응행동, 언어지체, 학습장애 등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밝히었다. Lee(2007)의 연구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 참여는 보통수준을 보였다. 중졸 이하의 학력, 농업이나 생산직 종사하는 아버지의 경우 양육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Kang(2014)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참여도 하위요인별로는 자녀의 생활지도가 가장 높았고 가사노동 참여도가 가장 낮았다.

반면,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가장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아내와 아내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Park(2019)의 연구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은 일반 가정과 다른 자신의 가정을 위해 자녀양육 참여와 가장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다. 또한, 아내의 모국어 사용을 허용하고 자신도 아내의 모국어를 배우는 등 아내를 인정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아버지의 노력은 아내에 대한 연민, 한국 문화에 적응을 하고자 노력하는 아내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Kim et al.(2018)과 Kim & Yoon(2015)의 연구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이 남편에서 아빠로 거듭나면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아버지의 부정적응 과정을 통해 남성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 전반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결혼이민자가정의 사회·경제 여건이 열악하고 부모들의 상이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영유아발달에 불안정한 환경이 될 수 있다(Kang, 2014). 결혼이민자가정은 이질적 문화들이 교차되는 문화접경지로 배우자와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의 확립과 아버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Park, 2019). 이와 더불어 유아교육기관과 결혼이민자가정 부모와 적절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지원을 제공한다면 유아의 건전한 발달 지원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다문화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Gu, 2010). 따라서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다문화교육의 실체가 어떠한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과 반영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Park et al., 2016). 이러한 측면에서 결혼이민자가정 부모와 유아교육기관의 협력은 중요하며 특히 가정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아버지와 유아교육기관과의 협력과정을 살펴보는 일은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와 관련 연구들은 다문화가족 아버지교육(Y. J. Choi, 2016; Lee, 2020), 양육 참여 및 역할(Cho, 2012; K. W. Choi, 2016; Im, 2012; Ko, 2014; Kim & Yoon, 2015; Lee, 2014) 부성·부모 되기(Kim et al., 2018; Park, 2019)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결혼이민자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인식과 수행 정도, 양육의 실재를 알아보고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가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면서 기관과의 협력의 과정과 내용은 영유아의 발달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의 기관 및 교사와의 부모협력을 살펴본 연구는 미흡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와 부모협력을 통해 유아교사가 경험하는 교육적 노력과 실천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결혼이민자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다양한 환경, 맥락을 이해하며 영유아의 건강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결혼이민자가정 부모교육의 방향성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유아교사가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와 협력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교육적 실천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경기도, 충청남도 지역에서 결혼이민자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의 결혼이민자가정 자녀를 지도하고 있는 유아교사 10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시작에 앞서 연구

의 목적과 자료수집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참여자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	참여자	학력	경력	학급 연령	이민자 가정수	이민자 여성 출신국가	아버지 연령대
1	최교사	4년제 아동복지학과졸	7년	만 5세	2	베트남, 중국	50대, 60대
2	안교사	4년제 아동학과졸	11년	만 4세	3	중국, 필리핀. 베트남	40대, 50대
3	이교사	교육대학원 재학	5년	만 3세	3	베트남, 일본	30대, 60대, 60대
4	김교사	2년제 유아교육과졸	4년	만 3세	4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50대, 60대
5	윤교사	4년제 유아교육과졸	2년	만 2세	2	러시아, 베트남	40대
6	민교사	대학원 재학	10년	만 2세	1	중국,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	50대
7	정교사	3년제 유아교육과졸	6년	만 3세	1	몽골, 베트남	50대
8	고교사	4년제 아동복지학과졸	4년	만 4세	2	중국, 몽골	50대, 60대
9	신교사	4년제 아동학과졸	4년	만 3세	3	중국, 베트남, 태국	60대
10	유교사	4년제 유아교육과졸	4년	만 5세	2	몽골, 베트남, 러시아	40대, 60대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와의 협력을 통한 유아교사의 교육적 노력과 실천은 어떠한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원화된 방법을 통해 심도 깊게 자료를 탐색하고 현장을 특정 맥락과 분리하지 않으며 인과과정보다 절차와 과정, 상호작용에 대한 탐색을 중요시하는 사례연구(case study)(Stake, 2007)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를 지도하고 있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수집은 2018년 9월 3주~11월 4주(총 6주)(참여자 1~참여자 6)에 걸쳐 이루어졌고 2차 수집은 2019년 4월 2주~6월 3주(총 7주)(참여자 7~참여자 10)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반 구조화, 개방 질문을 혼용하여 심층면담을 총 15회 실시하였고 면담시간은 회당 60분~120분 소요되었다. 심층면담은 참여자들의 편의를 고려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연구실, 휴게실, 야외 공

원, 카페에서 실시하였다. 전사과정에서 연구 흐름에서 중요한 부분과 모호한 내용은 확장되고 구체적 재질문을 목적으로 추가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과정은 참여자 동의하여 모두 녹음되었다. 수집자료는 심층면담 녹음자료를 전사한 전사본, 연구자가 연구현장을 스케치하고 아이디어를 기록한 현장노트(field notes)를 수집하였다. 결혼이민자가정 유아 관찰기록 및 아버지 상담기록은 직접 수집된 자료는 아니나 심층면담 과정에서 교사와 함께 열람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이해, 연구 맥락을 이해하는데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분석이 실시되는 순환적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수집자료는 순차적이고 누적적으로 컴퓨터 폴더에 저장되었다. 자료분석은 심층면담 전사본을 중심으로 사례연구에서의 자료분석 및 해석방법(Stake, 2007)에 의거하여 유목화하고 분석 범주를 정하여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날짜별로 저장된 파일을 출력하여 전체 텍스트 읽기를 실시하면서 내용을 유목화하고 주제를 생성하였다. 전사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연구 맥락을 이해하고 자료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자료 여백에 최초 코딩, 범주를 기록하였다. 생성된 코딩, 범주를 토대로 연구 참여자의 언어와 표현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여 주제어를 도출하였다. 이후 텍스트 읽기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면서 생성된 주제어의 하위주제 도출, 주제어 및 하위주제 재구성의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주제어는 협력, 혼선, 불통, 아버지 주도, 어머니 배제, 불균형, 고집, 과도, 과열, 교사 무시, 학습, 훈육, 가정 문제, 중재, 불화, 가족 갈등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분석 결과를 연구 참여자와 함께 확인하는 절차(member check)를 거쳐 연구자의 이해도가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여 수정, 보완하고 연구 참여자의 의도를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가정-기관의 불통과 혼선

가. 아버지 주도의 부모협력

한국의 결혼이민자가정에서 남성은 아내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 실정 파악에 대한 취약성, 문화적 차이로 부모의 역할을 혼자 수행하고자 하며 경제적인 부양자로서 자신의 존재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둔다. 또한, 그 외 상징적인 존재로서 아버지인 자신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Lee, 2014). 이와 같은 현상은 본 연구에서도 포착된다. 본 연구에

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은 결혼이민자인 어머니들이 아직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고 한국문화에 적응이 안 되었다는 인식하에 어머니를 배제한 채 기관, 교사가 자신과 전적으로 소통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는 유아교사들이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와의 협력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단절이 되거나 혼선을 빚는 근본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유아교사들은 이러한 아버지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아버지와 전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협력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례에서와 같이 유아교사들이 영유아의 일상, 특이사항을 안내하고 전달하기 위한 전화 상담을 시도함에도 아버지와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많아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아버지들이 정기적, 비정기적 상담 시간의 잦은 불참, 자녀의 일상, 발달상황, 습관 등을 상세히 알지 못하는 일, 교사의 요청이 어머니에게 전달되지 않는 일이 빈번하고 이 같은 현상이 지속적, 반복됨에 따라 유아교사들은 결혼이민자가정과과의 아버지와의 협력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교사의 바쁜 업무 일상에서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상담이나 어린이집에서 오는 연락은 (어머니 말고) 아버지에게 해 달라고 하세요. (중략) 아버지에게만 연락을 드리다보니 통화가 잘 안돼요. 아버님께 연락하려고 하면 전화 안 받으시는 일 많고,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님께 해라 하시면서 정작 연락은 안 되니까요. 어느 땐 아버님께 시간 간격을 두고 4-5번씩 전화를 해야 겨우 통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일 반복되고 이런 점이 제일 어려움이에요. (2018.9.21. 이교사)

어머니가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서 아버지가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학원 보내는 것, 장난감 사 주는 것 이런 거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다 알아서 하신대요. 그래서 ‘OO이 엄마에게 얘기할 필요 없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새벽에 나가셔서 밤 늦게 오시고, 휴일도 일하셔서 연락이 거의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상담시간에 오셨을 때 가정에서 자녀와 어떻게 지내는지 여쭙보면 ‘일하느라 OO이랑 지내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잘 모르겠다’ 고 하세요. 좀 난감하죠. (2019.4.22. 정교사)

이로 인하여 유아교사들은 아버지와 전적으로 소통을 원하는 아버지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지 갈등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머니와 소통을 시도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교사들은 결혼이민자가정 어머니와 소통을 시도하여도 기대만큼 효과가 없음에 아쉬움을 드러내었다. 사례에서 유아교사들이 아버지 대신 어머니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쪽지 통신, 알림장 등을 통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시도하였으나 어머니와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자녀의 기관생활에 대해 무관심을 보이는 어머니도 있어 답답함을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버님이 너무 원하시니까 아버님께만 연락드리는데 별로 아이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한동안 연락도 안 되고 협조도 안 되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 먼저 연락드리고, 어머님께도 연락드리고 연락되시는 분께 상황을 안내하고 있어요. 한 번은 OO이가 집에서 다쳐왔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연고를 발라주었어요. 어머니께 전화 드렸더니 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설명 드리고 가정에서도 상처 소독이랑 연고 발라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어린이집에서 붙여준 반창고를 그대로 붙이고 왔어요. 어머니와 연락하는 것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2019.5.13. 고교사)

너무 답답해서 제가 어머님께 연락드렸어요. 전화 드려서 오늘 OO가 아프고 토했다고 잘 봐 달라고. 쪽지편지에도 적어드렸어요. 여벌옷을 챙겨 보내달라고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림편지도 쓰고 최대한 쉬운 말도 표현해도 어려우신지, 관심이 없으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시는데 잘 안 보내주세요. (2019.4.2. 유교사)

나. 담임교사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의 태도

유아교육기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모의 지원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와의 협력, 상담 과정에서 유아교사들은 아버지들이 기관에서의 상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교사, 기관과의 협력과 참여를 소홀히 하는 일, 교사를 가르치려는 태도, 담임교사보다 원장이나 원감 선생님을 더 신뢰하는 태도와 행동으로 인하여 원활한 상담과 협력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교사의 사기저하로 이어지는 모습도 보였다. 아래 사례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이 담임교사보다 원장선생님이나 원감 선생님에게 상담을 원하거나 학급에서 생긴 문제나 전달 상황에서 교사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준다. 또한, 상담과정에서 교사의 제안이나 교육적 소신을 수용하지 않는 아버지의 언행 및 태도로 인하여 갈등하고 고민하는 교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아버지와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까 우려하여 표면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교육적 소신을 이야기하지 않는 교사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와의 형식적이고 피상적 소통과 협력에 대하여 회의감을 표출하는 유아교사의 모습도 확인된다.

상담 과정에서 말씀드리면 알겠다는 말씀만 반복하세요. 교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무시한다고 할까요. 대충 듣고 끝내신 다음 원감선생님이나 원장선생님을 뵙고 가겠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반복되니까. ‘아, 나를 교사로서 신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계속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2018.11.12. 안교사)

아이가 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자세한 내용은 담임교사가 제일 잘 알잖아요. 결국 원장님께서서는 아버님 말씀 들으시고 나서 저에게 전달받고 다시 상담하시고, 어느 때는 원장님과 아버님이 상담하실 때 원장님이 부르셔서 원장님 실에 갈 때도 있어요. 원장님은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요. 이렇

게 되면 아이를 위해서도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교사가 제일 잘 아는데.. 교사로서 자신 감도 떨어지구요. (2018.10.8. 김교사)

교사로서 교육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색도 하시구요. 노골 적으로 선생님이 뭘 아느냐고 대 놓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원장님이나 주임 선생님이 아버님이 잘 모르시니까 교사로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오해 없이 잘해 드리라고 당부도 하시고. 저도 잘하려고 하는데. 아버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받아들여시고 불편해 하시니까 ‘ 좋게, 좋게’, ‘네네’ 하면서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는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상담을 잘 안 오려고 하시죠. 상담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요. (2019.4.8. 신교사)

아래 사례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이 교사를 어리게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에 유아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들은 그 원인으로 아버지의 높은 연령을 들었다. 교사들은 교사 연령이 상대적으로 부모들보다 연령이 적은 경우가 많고 특히 결혼이민자가정의 경우 일반 가정 아버지 연령 보다 많아 교육관, 사고방식, 대화 방식에서 세대 간 차이가 크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러한 아버지들의 태도와 행동에 대하여 유아교사들은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수용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들이 교사로서 대우하지 않는 태도와 행동을 지속, 반복함에 따라 사기와 교사로서 효능감이 저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들은 선배교사, 원감, 원장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버지는 교사를 교사로 대우하지 않구요. 좀 무시한다고 할까요? 옛날 분이시니까,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 중에서 저의 아버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셨어요. 상담할 때 부모님 대신 조부모님이 오시기도 하는데. 조부님과와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교사를 가르치려고 하시고, 선생님이 뭘 알겠느냐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렵죠. 이런 아버지들은. 처음에는 그래도 나름 내가 교사니까 배운 것, 아는 것을 교육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너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저도 지쳐서 어느 때는 그냥 “네네” 그렇게 짧게 말씀드려요. 그러다 보니 상담이 잘 안 되고, 부모님께 들어야 할 말, 교사가 해야 할 말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중략) 원장님에게 아예 말씀드려요. 나중에 들으시는 것보다 직접 교사인 저에게 들으시는 게 낫다 싶기도 하고. 말씀드리면 원장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렇게 해 봐라 조언을 해 주세요. (2019.4.26. 정교사)

OO아버지는 담임교사인 저와 상담을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원장님을 찾으세요.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결혼도 안 한 선생님이 뭘 알겠느냐,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전화하시면 무조건 원장선생님 바꿔 달라고 하시면. 어느 때는 원장님과 상담하시는 게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매번 그러시면 담임교사인 제가 좀 존재감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죠. 제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옆 반 선생님에게 상황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요. (2019.5.3. 유교사)

2. 특별하고 부적절한 요구

가. 영유아 발달에 부적절한 지도 요구

결혼이민자가정 어머니들은 자녀교육에 적극적인 양상(Jun et al., 2008; Na & Hong, 2016)을 보이는 반면, 아버지들은 교육적인 아버지 역할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혹은 낙관적이거나 귀찮아하는 모습과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Lee, 2014).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은 자녀교육, 일상생활을 포함하는 영역에서 다른 유아보다 특별하고 부적절한 교육을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교사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요구에 대해 어려움과 함께 교사로서의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었다. 아래 사례에서 아버지들은 학습측면에서 교사가 다른 유아보다 자녀에게 더 많은 각별한 관심과 대화, 놀이를 함께 해 주기를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들이 교사에게 ‘혹독한’ 방법으로 유아를 훈육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교사는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더 각별한 관심, 영유아 발달에 적절하지 않은 학습내용, 엄격한 체벌과 훈육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려움과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적 소신을 가지고 아버지들의 영유아 발달에 부적절한 지도 요구를 단호히 수용하지 않는 교사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아버님이 학습측면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 같아요. 오시면 다른 건 묻지도, 들으시지도 않고, ‘우리 아이 무조건 공부시켜 달라, 글 가르쳐 달라, 우리 아이가 2살부터 글을 읽었다’, 이러시면서 한자공부, 수학공부 시켜달라고, 그래서 여기 보내는 거 아니냐고 자꾸 요구하세요. 어려워요. ‘아이들은 놀이가 공부다’ 라고 말씀드려도 막무가내로 해 달라고요. ‘우리 같은 가정 도우라고 나라에서 어린이집에 돈 주는 거 아니냐고’ 따지시면서 무조건 해 달라고 하세요. 따르자니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018.11.16. 최교사)

집에서 OO이가 수학 문제 틀리면 화내고 혼을 많이 내시고 회초리로도 때리신대요, 애들 공부시키려면 무섭게 해야 한다고, 밥 안 먹어도 때리고, 동생이랑 싸우면 벌세우고. 어느 췌 추운 겨울에 문밖에 세워 두기도 하고. 버릇 나빠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때리라고, 벌세우고, 자꾸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시니까... 당황스럽고 너무 혹독한 방법이라 부담스럽고 마음이 아파요. (중략) 아버지들이 너무 모르시니까 저는 소신을 가지고 말씀드려요. 안 된다고.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 요구대로 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요. (2018.9.21. 이교사)

유사한 맥락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은 자녀의 편식 식습관, 정리정돈 습관을 고치고 익히도록 기관에서 교사가 엄격하게 지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교사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교사들은 생활지도를 담당하며 유아의 기본생활습 지도, 정서행동지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의 실체는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은 아내가 자녀양육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이를 기관에서 교사가 대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어머니의 한국음식에 대한 편식습관으로 인하여 유아가 편식습관이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교사가 이를 지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정리정돈 습관이 안 되어있어 자녀가 이를 학습하지 못하였으므로 기관에서 교사가 이를 지도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이처럼 교사들은 유아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과 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함에도 가정에서 부모의 일을 기관과 교사가 대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아버지들에 대해 어디까지 교사가 지도를 하고 관여할 것인지 고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아버지의 요구를 수용하여 유아의 상황에 맞추어 개별지도를 하는 일이 교사의 역할이라 여기고 정리정돈 지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가정 상황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다른 유아보다 더 챙기고 관심을 쏟는 경우가 있어 이것이 교사의 정당한 행위인지도 고민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반면, 유아의 형평성 차원에서 아버지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교사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아버지 중에, 엄마가 가정교육을 잘 못시켜서 가정교육을 유치원에서 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분이 계세요. 잘못하면 따끔하게 야단쳐야 그다음엔 안 그러는데 애들이 뭘 잘못해도 엄마가 그냥 놔둬서 애들 버릇이 없어진다고요. 예를 들면 편식 같은 것 고쳐달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한국음식에 어머니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국음식을 남기는 것에 대해 좀 관대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편식습관을 만들고 식습관 교육 안 시킨다고 교사가 해달라고 요구하시구요. 좀 돕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교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다가도 형평성 차원에서 OO한테만 그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구요.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들이 요구하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요. (2018.10.12. 안교사)

OO이네는 어머니가 치우는 거 싫어해서 애들도 치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늦게까지 일하시고. 어머니가 정리정돈하는 것을 잘 못하시고 지저분한 걸 잘 모르셔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서 치우고 정리하는 걸 아예 모른다고 하셨어요. 저에게 어린이집에서도 정리하라고 하고. 집에 가서도 이렇게 치우라고 해 달라고, 그렇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일과 중에 정리정돈 하는 시간이 있는데 OO이만 따로 정리정돈을 어떻게 시켜야 하나 고민스러워요. 그래도 교사가 개별적으로 유아를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정리정돈 지도를 시키고 있어요. (2019.5.16. 신교사)

결혼이민자가정하면 좀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이 더 많아요. OO이네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일하시니까요. 어느 때에는 “OO 좀 씻겨 주세요”. “OO 먹여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모님 안색도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OO이도 그렇고. 제가 안 된 마음 가지면 동정하는 것 같고. OO이를 다른 친구들보다 저도 모르게 더 챙기게 되는 거예요. (2019.5.21. 유교사)

나. 가정 문제의 중재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는 외국에서 온 아내를 약자로 보고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로 살아가는데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과소평가하기도 하고 아내에게 어머니 역할을 요구하기보다 딸처럼 대하기도 한다(Lee, 2014). 본 연구에서 유아교사들은 자녀 양육을 포함한 문제로 부부갈등을 호소하고 이를 중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아버지들에 대해 어려움과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었다. 아래 사례에서 아내가 여타 결혼이민자가정 어머니들과 잦은 모임을 갖고 이 때 한국어 대신 자국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버지들은 교사에게 어머니가 결혼이민자가정 어머니들과의 모임 참석을 저지하고 한국어 습득을 빨리해서 기관의 부모협력, 부모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개입해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교사들은 어머니가 기관과의 협력, 부모참여에 동참하는 일은 필요한 일이나 가정의 문제에 대해 교사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딜레마를 느끼는 모습, 이러한 아버지 요구를 과도하게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버님은 어머님이 한국어 빨리 배웠으면 좋겠는데 한국어 공부 잘 안 해서 한국어가 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버님이 너무 힘들다고. 어머님이 결혼이민자가정 커뮤니티, 모임 같은 데 자주 나가시고 원래 모국어를 쓰시나 봐요. 그래서 아버님은 어머님에게 한국어 열심히 배운 다음 어린이집에 오라고 말해달라고 하세요. 이런 말씀 들으면 어머님께 원에 오시라고 행사에 오시는 게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아버님 요구대로 어머니한테 모임 가지 마세요. 한국어 열심히 배워서 어린이집에 오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일은 도를 넘는 것 같아요. (2018.10.25. 김교사)

아내분이 외국 분이고 어리셔서 힘들다고 하세요. 집안일을 아버님이 다 하시는데 어머니가 어머니 몫을 안 하신다는 거죠. 가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 상담을 하다보면 아이보다 아버님 개인 상담으로 끝나는 것 같은 때가 힘들어요. 아이 이야기로 들어가야 하는데 부부 문제에 대한 갈등으로 이야기 주제가 채워지니까요. 그래도 교사가 가정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딱히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닌데 마음은 무거워요. 아이한테 안 좋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2018.10.23. 윤교사)

아래 사례에서는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이 유아교사에게 가정에서 나타나는 고부갈등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사들이 간접적으로 중재하고자 하

는 시도가 나타났다. 예컨대, 교사들은 어머니들을 약자로 인식하여 조모가 방문하였을 때, 어머니의 입장에서 간접적 중재를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면, 자녀양육에 소홀하여 고부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어머니와의 소통이 어렵고 어머니의 양육관이 너무 확고하여 중재와 교육이 어렵다는 인식도 볼 수 있다.

OO할머니가 가끔 하원 지도 오세요. 아버님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너무 싸운다고, 바빠서 신경 못 쓰는데 OO이를 위해서라도 교사는 제가 얘기를 잘 해 달라고 하세요. 어머니들이 너무 나이가 어리시니까요. 타국에 와서 좀 안 됐다 싶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할머니께 어머니 입장 좀 넉넉히 말씀드릴 때도 있어요. (2019.4.26. 신교사)

결혼이민자가정에도 일반 가정처럼 고부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OO이는 어머니도 일하시니까 할머니가 주로 돌봐주시는데요. 어머니가 OO한테 너무 허용적이라고 해야 하나 제가 보기엔 거의 방임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안타까우시니까 어머님한테 “OO 이거 해 줘라.”, “저거 해줘라.”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갈등이 있대요. 아버님 말씀은... 그래서 선생님이 좀 나서달라고 하시는 데, 어머님하고 일단 소통이 잘 안 되구요. 어머님의 생각이 너무 확고해요. 어머님 나라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고요... 제가 더 이상 나서는 게 어려워요. (2019.6. 7. 유교사)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와의 협력을 통해 유아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교육적 노력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 및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유아교사가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와의 협력과정에서 경험은 어려움은 가정과 기관의 불통과 혼선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아버지 주도의 부모협력, 교사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의 태도 범주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은 어머니가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고 한국문화에 적응이 덜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여 어머니를 배제한 채 기관, 교사가 아버지와 전적으로 소통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럼에도 교사와 아버지와 협력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는 아버지와의 연락 두절, 상담의 잦은 불참석 등이 큰 걸림돌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안내한 사항이 어머니와 공유되지 못하는 점도 가정과 기관의 의사소통의 걸림돌로 나타났다. 이를 위하여 교사들은 아버지와 더 많은 연락을 취하고 어머니와도 의사소통을 시도하였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교사들은 그림편지, 쪽지 통신 등을 활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교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기대만큼

어머니와 협력이 원활하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이민자가정에서 아버지가 주된 보육의 파트너이며 아버지들이 어머니의 양육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덜 관여하고 있음을 나타낸 Gu(2010)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다. Lee(2020)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아버지들이 건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아버지교육에 참여가 저조하며 그 주된 이유로 다문화가정 아버지들이 직장 일로 주중에 시간을 내기 어렵고 그마저도 어머니 대신 아버지가 주로 참석하는 모습을 보여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어 본 연구결과는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은 교육적인 아버지 역할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낙관적이거나 귀찮아하는 모습과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자녀교육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태도로 학습, 일상생활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 Lee(2014)의 연구의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결혼이민자가정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에서 경제적 빈곤, 언어로 인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제한된 한국어 능력 때문에 자녀의 숙제, 학습지도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나타낸 Jun et al.(2008)의 연구결과와 부합된다. 그러나 결혼이민자가정 어머니들이 자녀교육에 적극적인 양상을 보인 Na & Hong(2016)의 연구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과의 협력과정에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근본적인 어려움은 아버지들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다. 이처럼 아버지들과 연락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 아버지들의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으며 야근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아버지의 연령이 높아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있고 양육참여가 낮고 그 방식 역시 전통적인 자녀교육을 고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Jo(2016)의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일수록 결혼이민자가정의 열악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고 결혼이민자가정의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도 주로 도시 지역에서 서비스 수혜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가정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결혼이민자가정의 어머니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가정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에 원활하게 참여하고 있지 못하며 미흡한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자녀에게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거나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다. 알림장 등 유아교육기관과의 의사소통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Jun et al., 2008). Kang(2014)은 결혼이민자가정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모국어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키워줄 것인지, 한국 사회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시켜 줄 것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어머니의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은 자녀에게 전이되어 건강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교육을 위해 지역, 아버지 연령 및 학력 등 개인특성이 반영된 지원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유아

교육기관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의 교육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에 대한 요구도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는 일이 필요하다. 예컨대,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이 자녀와 함께 하는 놀이, 다양한 나라의 특색 음식 만들기, 그림책 읽어주기 등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에게 제공해 준다면 자녀양육의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을 포함한 부모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문화적 이해, 정체성 교육을 포함하는 내용이 강화되어야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유아교사가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와의 협력을 통해 경험하는 어려움의 양상으로 영유아 발달에 부적절한 지도 요구가 나타났다. 여기에는 과도한 학습지도, 가정 문제에 대한 중재 요구 범주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들은 교사가 부적절한 학습지도와 더불어 다른 유아보다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과 대화, 놀이를 함께 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또한, 식생활, 정리정돈 지도를 위해 교사가 유아에게 엄격한 체벌과 훈육을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들은 다문화가정 유아들을 위하여 언어발달지도, 맞춤형 학습지도, 또래관계지도, 음식섭취지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인 Jeon & Nam(201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유아교사들은 이와 같은 아버지들의 요구에 갈등과 딜레마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의 개별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 인식하여 정리정돈 지도하거나 가정환경에 대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교사 자신도 모르게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하는 교사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반면, 유아들의 형평성 차원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의 각별한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 교사의 모습도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는 어머니가 한국 어머니보다 결혼이민자가정 어머니들과의 잦은 모임으로 한국어 구사 능력이 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교사가 이를 중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자녀양육으로 인한 가족 갈등, 고부갈등에 대해 교사가 중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아버지에 대하여 유아교사들은 과도한 개입이라 여겨 이행하지 않거나 어머니의 입장에서 고부갈등을 간접적으로 중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자가정에서 교사들이 어머니를 같은 여성으로 동정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인 Gu(2010)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은 아버지로서의 자녀양육 참여와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유아교사가 대리해 줄 것으로 요청하는 모습은 자녀양육 참여와 가장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인 Park(2019)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어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어머니가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자녀양육의 방입, 이에 대한 확고한 양육관으로 인해 시어머니와의 고부갈등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었는데 결혼이민자가정 어머니들이 교육신념이 매우 강하여 교사에게 부정적 인식으로 비친 Jun et

al.(2008)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라 하겠다.

이처럼 결혼이주민가정 아버지들이 유아교사와의 협력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적절한 요구와 이에 대한 교사의 교육적 실천 행위는 결혼이주민가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민가정이 특별하다는 아버지의 인식은 유아교사에게 부적절하고 특별한 요구를 하게 하는 배경이 된다. 예컨대, 결혼이주민가정의 영유아, 부모를 주류문화인 한국문화적 입장에서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이 한국 문화 속에 융화되고 편제되도록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것인지의 관점이다. 또 다른 관점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결혼이민자가정의 소수 문화를 존중하고 영유아와 부모를 일반 가정 영유아, 부모와 동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과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Jo(2016)는 다문화가족 지원 상황에서 일부 수혜자들의 경우 지원서비스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공동체와 사회나눔, 배려정신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기존의 온정적 지원 위주의 시혜성 담론에서 근래 역차별, 반다문화 의견을 출몰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 Park et al.(2016)은 최근 문화다양성 측면에서의 논의가 일고 있으나 여전히 학교현장에서 구체적 실천이 미비하다고 지적하였다. 일찍이 Gu(2010)의 연구에서 유아교육현장에서는 일반 가정 유아와 다문화가정 유아를 구분 없이 생각하는데 굳이 분리해서 실시하는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영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결혼이민자가정 유아들에 대해 그냥 한국아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중요함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사회구성원들이 ‘결혼이민자가정’이라는 특별한 용어 속에 차별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가정을 지도하는 교사의 인식과 관점을 점검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가족을 이해하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반가정의 영유아, 부모를 위한 교육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Park & Han, 2011). 아울러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들이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양육 및 교육관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적절한 양육 및 훈육 내용 및 방법, 자녀와의 상호작용 및 대화기법, 부모역할 훈련을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결혼이민자가정의 경제적 수준, 출신배경, 욕구수준 등의 차이로 인한 결혼이민자가정의 어려움과 문제는 분화되고 있고 결혼이주민 가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가출, 별거 등으로 조손가족이 형성되고 있다(Jo, 2016). 이러한 양상으로 인한 어려움, 결혼이주여성과의 융화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가족들의 문제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결혼이민자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영유아에게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결혼이민자가정마다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행·재정 지원 역시 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교사가 결혼이민자가

정이 직면하는 현실에 직접 개입하고 지원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 정부의 관심과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Rhoads(1998)는 다문화적 사회활동은 사회적 행동과 성찰의 일부로 간주되며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데 권력의 분배, 권력과 경계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사회 결혼이민자가정에 대한 관점과 지원은 주류문화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소외된 삶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높이며 자각과 실천(Chen & Starosta, 1996; Hooks, 1994)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다문화 태도와 행동역량 증진도 필요하다. 덧붙여 유아교사는 다문화 교실의 변화를 위해 유아교사들의 다문화 인식과 역량도 증진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Chen, G. M., & Starosta, W. J. (1996).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A synthesis. *communication yearbook*, 19(1), 353-383. <https://doi.org/10.1080/23808985.1996.11678935>
- Cho, K. S. (2012). *A study on international marriages and father's roles on children's education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rural area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국문: 조경숙(2012). **농촌지역 국제결혼 다문화가족 아버지의 자녀교육 역할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Choi, K. W. (2016). *The current states and need assessment of multi-cultural family father education progra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국문: 최경운(2016). **다문화가족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의 실태 및 요구 분석**.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Choi, Y. J. (2016). *Factors affecting the paternal involvement in 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hwa Womans University. 국문: 최예지(2016). **다문화가정 한국인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Gu, S. Y. (2010). Dilemmas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cusing on child care center. *Journal of Multi-Cultural Contents Studies*, 3, 65-92. 국문: 구수연(2010). 다문화 현장이 갖는 딜레마: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8(3), 65-92.
- Hooks, B. (1994). *Teaching to transgress*. Routledge.
- Huh, B. Y., & Han, K. J. (2009).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maternal depression during early childhood.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12(2), 131-146. 국문: 허보윤, 한경자(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 우울.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2(2), 131-146.
- Im, H. J. (2012). *Narrative inquiry on raising children experiences of father in multi-cultural family: Based on the families of vietnamese marriage migr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국문: 임희정(2012).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자녀 양육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베트남, 결혼이주민 여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 Jeon, S. Y., & Nam, B. H. (2015). Educational efforts and practices of daycare center teachers based on their experiences with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19(4), 65-93. 국문: 전소현, 남부현(2015). 어린이집 교사의 다문화가정 유아 경험을 통한 교육적 노력과 실천. **유아교**

육·보육복지연구, 19(4), 65-93.

- Jo, H. Y. (2016). Recognition on the issues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nd reverse discrimination: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service experts for disadvantaged groups. *Multiculture & Peace*, 11(3), 135-159. 국문: 조혜영(2016). 다문화가족 지원과 역차별 이슈 인식 고찰: 취약집단 서비스 담당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1(3), 135-159.
- Jun, H. J., Pae, S. Y., & Kwak, K. J. (2008). Practices and meanings of immigrant mothers' support for children's education: Cases of mothers from the Philippines and Japan. *Family and culture*, 20(3), 161-186. 국문: 전홍주, 배소영, 광금주(2008). 결혼이민자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지원의 실제와 의미: 필리핀과 일본 어머니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3), 161-186.
- Kang, S. K. (2014). *The relation between the multi-cultural family father's participation in rearing of children and the children's adaptability in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o-Suk University. 국문: 강세규(2014). *다문화가정 아버지 자녀양육참여도와 자녀의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 Kim, H. S., Chung, M. R., & Kim, G. S. (2018). Grounded theory study on a parenting practices and type of the father with child.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8(1), 367-390. <http://dx.doi.org/10.18023/kjece.2018.38.1.015> 국문: 김혜숙, 정미라, 김경숙(2018). 영·유아 아버지의 부모역할 실제와 유형에 대한 근거이론연구. *유아교육연구*, 38(1), 367-390.
- Kim, J. W., & Yoon, H. Y. (2015). Analysis of the fathers parenting adaptation process by grounde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Policy*, 26, 109-127. 국문: 김진욱, 윤혜영(2015). 근거이론에 의한 아버지의 양육적응과정분석. *지역복지정책*, 26, 109-127.
- Kim, M. H. (2012). *The paternal role in the education of children in a rural multicultural fami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국문: 농촌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서의 아버지 역할: 경상남도 의령군과 함안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Kim, M. H. (2013). A study on the direction of literary education for multicultural literacy. *The journal of migration & society*, 6(1), 5-31. 국문: 김미혜(2013). 다문화 문식성을 위한 문학교육의 방향연구. *다문화사회연구*, 6(1), 5-31.
- Ko, S. H. (2014). *A study on the role of fathers in the child care of 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il University. 국문: 고성환(2014).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학교.

- Lee, H. A. (2020). Effect analysis of the fatherhood programs provided in healthy family and multicultural support center.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10(2), 143-175. ☞ 국문: 이현아(202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아버지참여 프로그램 효과 분석. **현대사회와 다문화**, 10(2), 143-175.
- Lee, H. J. (2010). Marital adjustment process of Korean husband of multi-cultural family. *Asian Journal of Education*, 11(4), 119-143. ☞ 국문: 이호준(2010).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결혼적응 과정. **아시아교육연구**, 11(4), 119-143.
- Lee, H. K. (2014). (A) *Qualitative study on role practices of fathers in rearing young children within 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국문: 이현경(2014). **다문화 가정의 유아기 자녀양육에서 아버지 역할 수행에 관한 질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Lee, J. B., Park, K. Y., Kim, H. Y., & Yang, Y. J. (2010). *Development of integrated education programs and operating methods: Helping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dapt to school life in the initial stages*.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R 2010-09-1). ☞ 국문: 이재분, 박균열, 김혜원, 양영자(2010). **다문화가정 학생 입학초기 학교적응을 위한 통합적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RR 2010-09-1).
- Lee, J. S. (2007). A study of childcare and education, fathers' childcare participation in an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2(6), 21-42. ☞ 국문: 이진숙(2007).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양육실태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21-42.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0). *Multicultural Family Statistics*.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742 (2020.10.5) ☞ 국문: 여성가족부(2020). **결혼이민자가정 통계**. 여성가족부.
- Na, Y. E., & Hong, Y. H. (2016). *A qualitative study of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 women's view on children* (pp. 68-78).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Conference. ☞ 국문: 나영이, 홍용희(2016).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자녀관에 관한 질적 연구** (pp. 68-78). 한국육아지원학회 학술대회지.
- Oh, J. I. (201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to the sociability development of preschool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 국문: 오정인(2012).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Park, C. M., Jo, J. S., & Kim, Y. C. (2016). For the better future: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dilemma of the multi-cultural curriculum in Korean elementary school. *Multicultural*

- Education Studies*, 9(1), 185-213. ☞ 국문: 박창민, 조재성, 김영천(2016).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나라 초등학교 현장에서의 다문화교육과정의 딜레마들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다문화교육연구*, 9(1), 185-213.
- Park, H. J., & Han, N. J. (2011). The effects of integrated multicultural education on creativity and prejudice of children.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1), 72-95. ☞ 국문: 박현정, 한남주(2011). 통합적 다문화교육이 유아의 창의성과 편견에 미치는 영향.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1), 72-95.
- Park, J. H., & Yun, C. M. (2018). Mediated effect of aggression and adjusted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eer attachment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8(4), 63-86. <https://doi.org/10.34226/gcl.2018.8.4.63> ☞ 국문: 박재학, 윤춘모(2018).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다문화수용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와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8(4), 63-86.
- Park, S. Y. (2019). *Fatherhood adaptation process of fa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국문: 박소연 (2019).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부성 적응과정*.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Rhoads, R. A. (1998). Critical multiculturalism and service learning. In R. A. Rhoads, & J. P. F. Howard (Eds.), *Academic service learning: A pedagogy of action and reflection*. Jossey-Bass.
- Shin, H. S. (2010). *A study of the effects of life environments on children's school mal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eagu University. ☞ 국문: 신호선(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환경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Stake, R. E. (2007).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Sage Inc.
- You, E. S. (2018). A case study on education for multicultural acceptivity of childcare teachers. *The Multicultural Child and Youth Studies*, 3(3), 61-79. ☞ 국문: 유은선(2018). 보육교사의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한 교육사례. *다문화청소년연구*, 3(3), 61-79.